

안철수, 새정치 혁신위원장 맡을까

당 쇄신 진두지휘...문재인 대표 제안에 고심

리더십 발휘 당 내홍 수습엔 차기 대선에 유리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으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의 쇄신을 진두지휘할 '초계과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고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30여분 동안 단독 회동을 갖고 혁신기구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문 대표 측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전한 반면 안 전 공동

대표 측은 "제의를 수락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가 혁신기구를 이번 주 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안 전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을 받아들인다면 흔들리는 당을 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아권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들이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당 지지를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안 전 대표로서는 문 대표 등 친노 진영과 '협조적 경쟁관계'를 뚜렷하게 구축하면서 비판에만 집중하는 다른 비노 진영과는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세력이 없는 안 전 대표로서는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 진영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흔들리는 당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이며 차기 대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당내 최대 대권 경쟁자인 문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과감하게 손을 잡아준다면 단번에 '통 큰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안 전 대표는 재보선 패배 후 다른 비주류 진영 인사들이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달리,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흔들리는 당을 외면할 수도 없는 데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리더십

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안 전 대표 입장에서 혁신기구 위원장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대표가 혁신기구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만만치 않다.

당장 비노 진영에서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노 진영과 결국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차기 공천과 관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당내 의원들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내 내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대로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지금까지 문 대표와 친노 진영에 집중했던 비난이 안 전 대표에게 돌아가면서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수활동비 80억이 싹쓸이?

국회의원들 생활비·유학비 등에 써

영수증도 없이 사용...투명화해야

'성원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출처에 대해 일종의 국회 판공비로 해명하면서 수당 규모나 성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불투명한 사용이 문제화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에게는 한 달에 1000만원, 각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들의 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9억 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회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다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돼 명확한 사용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8~2009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홍지사는 국회에서 받은 금액을 '대책비'로, 2012~2014년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직책비'로 달리 표현했지만, 이들이 언급한 게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홍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특수활동비는 주로 상임위 여야 간사에 활동비로 다시 나눠 주거나,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대금, 경·조사 부의금, 해외출장 지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가 자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지 않아 통제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도 굉장히 많다"면서 "야당 때부터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 신기남 위원장 등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 분권단체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박대통령 이번엔 수첩인사 안된다"

"차기총리 국민통합형 인선을...박,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엔 협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총리만은 '수첩'을 넘어서 국민 통합형 총리로 인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분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 "지난 2년 대한민국

은 갈등과 분열로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극심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로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통합형 총리가 필요한 때이다. 국정운영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나아가 "통합형 총리 인선과 함께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국무위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을 위한 행진곡"으로 갈등을 조장한 보훈처장은 당연히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존중하며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며 "야당의 어려운 처지로 독선과 독주를 계속해도 괜찮을 것이라 오만하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집권 후반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만약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총리를 지명하면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연등천 '자연친화형' 조성

주승용의원 특별교부세 5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연친화형 연등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친화형 연등천 조성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여수시 남산동 남산교에서 둔덕동 인공습지를 잇는 연등천 일대에 수변공원·산책로·정감다리·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체형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자연친화형 연등천 조성사업 예산으로 올해 9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4억5000만원 확보에 그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주 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주 의원은 "원도심을 관통하는 연등천은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에 벗어나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수·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810 5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로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